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 . 9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말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말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말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말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0 / 9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인연과 만남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떠오르는 두 얼굴
일기일회	09	하루를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으라
인연과 만남	20	인연과 만남
법정 스님의 숨결	32	내 생명 뿌리가 꺾였구나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36	화상 ^{華僧} 을 언다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40	사실 나는 옛집의 주소조차 잊어버렸다
법정 마음의 온도	42	아름다운 인간관계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44	인연 따라 거리낌 없이 사니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5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9월 1일 발행 / 통권 307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광래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떠오르는 두 얼굴

글 • 법 정(法 頂)

여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마루에서 지냈다. 밤에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방을 쓰지 않았다. 천장이 낮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은 여름을 지내기에는 답답하다.

나 혼자서 사는 오두막이라 남의 시선이 없어 정장을 할 필요가 없다. 헐렁한 속옷 바람으로 맨발로 지내니 내 몸과 마음 또한 자연 그대로였다.

원래 우리 몸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사람끼리 한데 어울려 살다보니 남의 눈을 의식하고 필요 이상으로 겹겹이 걸치게 된 것이다.

산을 내려올 때 양말을 신고 정장

을 하면 이내 답답함을 느낀다. 온몸의 살갓이 숨 막혀 한다. 오두막으로 돌아오자마자 훅훅 벗어버리고 나면 그렇게 훌까분할 수가 없다. 문명과 자연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심신이 함께 실감한다.

나는 아직도 이런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다음 어딘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집을 한 채 짓고 싶다. 사람이 살기에 최소한의 공간이면 족하다. 흙과 나무와 풀과 돌, 그리고 종이만으로 집의 자재를 삼을 것이다. 흙벽돌을 짚어 도담집을 짓고, 방한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이면 더 바랄 게 없다. 지붕은 물론 억새나 벗짚, 아니면 산죽으로 덮으면 된다. 일

보는 집(정량)은 저만치 떨어진 곳에 그것도 또한 흙집으로 지을 것이다.

방은 구들을 놓고 재래식 종이 장판에 지선암에서 순 딱으로 만든 ‘영담한지’로 도배를 할 것이다. 마루에는 넓은 들창을 달아 밝게 하고 바람과 달빛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야겠지. 토담집일지라도 천장은 높아야 한다.

그래야 실내 공기를 맑게 유지할 수 있다. 방도 물론 창을 큼직하게 달아 밝게 할 것이다. 밝은 창 아래 조출한 서탁을 두고 문방사우(文房四友)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방석 한 장이면 된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거나 치장하지 않고 텅 빈 벽으로 무한한 정신 공간을 삼을 것이다.

마루는 할 수 있으면 우물마루로 하여 나무와 마루의 품격을 살리고 싶다. 마루 끝에 나무로 짠 의자를 하나 놓아두고 무료하면 거기에 앉아 책도 읽고 솔바람 소리에 귀를 기

울이기도 할 것이다.

부엌은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도록 하고, 부뚜막에는 크지 않은 무쇠 솥을 걸어 익히거나 끓게 한다. 한 쪽에 칸을 막아 간소하게 주방 시설을 하고 싶다. 거기에 대나무로 흙대를 이어서 시냇물의 한 줄기가 지나가도록 하면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무방할 것이다.

아, 나는 이렇게 꿈을 지니고 있다. 이런 내 꿈이 금생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생에나 가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꿈이 설사 희망사항에 그친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푹푹하게 행복하다.

불일암에서 살 때부터 정갈하고 넓은 마루가 그리웠는데, 곤지암에 있는 보원요(寶元窯)의 넓은 마루를 보고, 우리네 주거 공간에서 마루가 얼마나 시원한 몫을 하는지 새삼스레 헤아리게 되었다. 그 마루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주로 파리 길상사 후원회 회원들인데, 회비 명목으로 돈만 거두기가 그래서 경전을 교재로 하여 내가 강론을 해 오고 있다.

그 마루의 둘레는 이 집의 주인인 김기철 님이 빗어서 구워낸 백자 항아리며, 연잎을 주제로 한 그릇들이 있어 정갈한 마루의 운치를 더해 주고 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릇이 오늘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맑고 아름답고 의젓하기까지 한 모습에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자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 것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요즘 조용히 읽히고 있는 수상집 <꽃은 흠에서 핀다>의 산실이 바로 이 마루임을 밝혀두고 싶다.

내 오두막의 둘레는 지난해처럼 노란 마타리꽃이 피어나고 있다. 산

바람에 하늘거리는 마타리꽃은 가을의 입김을 머금고 있다. 꽃이 피어나기 전에는 마치 기장조 같은 모습인데 꽃이 피어나면 밤하늘에 은하수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꽃 모양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확대경을 통해 보면 비록 작은 꽃이지만 꽃 하나 하나가 그대로 하나의 우주라는 생각이 든다. 꽃도 작은 꽃이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 오두막에 와 지내면서 문득 문득 두 스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다. 내가 20년 가까이 조계산에 사는 동안 헤어질 수도 없이 수많은 스님들과 접촉이 있었다. 자칭 무엇을 깨달았다는 큰스님을 비롯해서 꽃중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스님들과 한 산중에서 마주하고 지내기 한 두 철이 아니지만 거의 모두가 추상적인 균중의 얼굴이다. 그런데 그 많은 얼굴들 가운데서 유달리 두 얼굴이

내 기억의 언저리에 또렷이 떠오르는 것은 그들 삶의 모습이 그만큼 내게 인상 깊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스님의 이름은 혜담(慧潭), 그 나이 지금쯤 50의 고개를 넘었을 것이다. 송광사 선원에서 10년 가까이 지낸 스님인데 육신의 나이와는 관계 없이 순수하고 부지런했다. 아름다움을 알고 탐구력 또한 강한 스님이다. 사철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를 걸치고 정진시간이 끝나면 뜰에 돌아난 잡초를 혼자서 매고 낮으로 풀베는 일을 즐겨했다. 그는 풀 향기에 도취되어 우리 불일암에 올라와서도 수북이 자란 풀을 베어주곤 했다.

누더기 속에 확대경을 지니고 다니면서 보잘것없는 풀꽃에서 아름다움을 캐내기도 하였다. 그는 맨발로 흙 밟기를 좋아해서 일할 때는 거의 맨발인 채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묵묵히 일하기를 좋아하는 그의 손은 나뭇등걸처럼 거칠

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바보 이반’의 손이 것처럼 투박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는 밝아오는 여명을 좋아하여 새벽 좌선 시간에는 전등불을 켜는 일이 없었다. 그대로 어둠 속에 앉아 점점 밝아 오는 새벽을 지켜보는 일로 새벽의 정진을 삼았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철저한 무소유의 수행자였다. 몸에 걸친 누더기 한 벌과 걸망(배낭) 하나뿐이었다. 한때는 라즈니시에 열중했었지만 책을 간직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일에 그의 삶을 불태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내가 뜰이나 밭에서 잡초를 매고 있을 때면 문득 문득 혜담 스님 생각이 난다. 승가의 서열로는 후배이지만 좋은 도반(道伴)으로 내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다.

또 한 얼굴은 황선(黃仙) 스님. 내가

지금까지 대했던 수많은 수행자들 중에서도 가장 맑은 스님이다. 지금 쯤 아마 40줄에 들어섰을 것이다. 송광사에서 지내는 동안 관음전에서 '천일기도'를 두 번 무사히 마친 스님이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장기간 기도를 하게 되면 거의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고 마는데, 황선 스님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천일 동안을 한결같이 수행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은 산문 밖에 한 걸음도 내놓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이따금 우리 불일암에 올라와 차를 마시고 갈 정도였다.

황선 스님은 꽃을 좋아하여 노스님들의 거처인 메마른 도성당道成堂 뜰에 꽃을 가꾸어 향시 꽃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 텅 빈 그의 방은 방한가운데 방석 하나와 문지방에 조그만 탁상시계, 그리고 화병에 한 줄기 꽃이 꽂혀 있거나 수반에 꽃잎을 띄워 놓곤 했었다.

그도 탐구력이 강해서 기도의 여가에 독서를 많이 했다. 그리고 검은빛을 좋아해서 고무신을 비롯해서 차반도 찻잔 받침도 심지어 내의 까지도 먹물을 들여 입었다. 연장을 가지고 차반 같은 일용품은 손수만 들어 자신도 쓰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그 모서리가 예리해서 나 같은 사람은 그 모서리를 다듬어서 썼다. 그의 말로는 예리해야 긴장감이 있어 좋다고 했다.

그가 조계산을 떠나던 날 새벽, 그의 방 앞에 있던 오지 수반과 받침대를 지게에 지고 불일암에 올라왔다. 후박나무 아래 있는 오지 수반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문득 문득 생각이 난다. 어느 산중에서 지내고들 있을까. 두 사람 다 내가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도반이다. 1993

•발췌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하루를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으라

글 • 법 정(法 頂)

아침에 산을 나오면서 ‘내가 언제 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증으로 사는 동안 공밥을 먹을 수는 없고,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저는 길상사라는 절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데 차가 막히지 않으면 네 시간 남짓 걸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하게 될까?’ 오는 동안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회에 오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고마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한 세상, 한 시대를 살면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 이야기 하고 듣는 인연을 맺습니다. 그것이 소중해서 저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끌어당기는 인력, 그 힘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보통 90일 안거인데 올해는 윤달이 들어서 120일이나 걸렸습니다. 지난 안거 결젯날 제가 몇 가지 당부 를 했습니다. 먼저 각자 원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이 없으면 사는 일 자체가 개운치 않습니다. 또 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

게 됩니다. 일정한 원을 세우면 그 원을 이루기 위해, 원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이 사회, 하다못해 병원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들의 은혜를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한 배려, 이웃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최소한 한 시간만이라도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오늘 해젯날, 내가 세운 원을 얼마만큼 실행하고 이루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은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이 막 되어서 가장 오

래 산 절이 해인사입니다. 그곳에서 12년을 살았는데, 말하자면 해인사에서 중으로서 잔뼈가 굵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방에서 정진도 하고 강원講院(절 안에 넓은 강당을 만들고 경전을 가르친데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공부하는 승려를 학인學人이라 하며, 4년의 일정한 교과과정이 있다)에 내려가서 경도 배웠습니다. 처음 2,3년 동안은 완전한 풋중 시절이어서 지금 생각해도 걸도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웅성거리며 그렇게 살았던 시절입니다. 두 세 해가 지나니까 중노릇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서서히 들었습니다.

해인사 시절에 지금도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법당에서 대중과 함께 아침저녁 예불을 한 다음에는,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장경각 안에 있는 법보전이라는 법당에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기도했던 일이 제

생애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 영향은 영암^{映岩} 스님에게서 받았습니니다. 당시 자운 스님이 주지였고 영암 스님이 총무였습니다. 나중에 영암 스님이 주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해인사에서 12년 있는 동안 주지가 네 사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운 스님, 그다음에 청담^{靑潭} 스님이었고, 다시 자운 스님이 오셨다가, 그다음에 금담^{金潭} 스님이 오셨습니다.

영암 스님은 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기도를 했습니다. 늘 장경각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큰 법당에서 대중과 함께 예불을 하고 나서 장경각에 올라가면 영암 스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사이 저는 장경각 뒤에서 포행^{布行}(좌선 중 졸음이나 피로한 심신을 풀기 위해 선방 밖 일정한 장소에서 산책하듯 느린 걸

음으로 거니는 일)을 돌면서 한 30분 있다가 스님이 나오시고 나면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해인사에 있는 동안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정진을 했습니다. 그때의 정진이 제가 중노릇하는 데 큰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대충 쉽게 지냈을텐데, 장경각에서 아침저녁 기도한 공덕으로 여러 가지 중노릇하는 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제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깨끗이 닦아 내야 합니다. 자기 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정화는 참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생도 금생이지만 전생에 어떤 몸으로 어떤 삶을 이루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허물이 없을 수 없습

니다. 불교 의식 가운데 한문으로 된 참회의 구절이 있는데, 번역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탓으로 무량겁을 두고 한량없는 허물을 지어 왔습니다. 이제 뉘우쳐 참회하오니 다시는 허물을 짓지 않고 언제까지나 깨달음을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소원은 울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진심으로 하면 천지신명까지도 감동하게 됩니다. 기도에는 어떤 요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일본 수녀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한밤중에 방글라데시 앞바다를 향해 중이던 한국 선박

에서 선원 한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칠혹 같은 바다로 떨어집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배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이 선원은 무슨 일로 밖에 나왔다가 아마도 파도에 휩쓸렸던 모양입니다.

그 선원은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붙잡을 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몇 시간을 헤엄칩니다. 그러다 기진맥진해져서 기절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큰 거북이 등에 자기가 올라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섯 시간이나 거북이는 물에 잠기지 않고 선원을 등에 태우고 떠 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에, 배에서는 선원 한사람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난리가 납니다. 어제저녁까지 같이 있던 동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발각 뒤집혀서, 틀림없이 파도에 휩쓸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해서 왔던 길을 되

돌아갑니다. 몇 시간을 되돌아가도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대해를 여섯 시간을 항해해서 되돌아오니, 그 책에서 묘사하기를, 해는 중천에 떠 있고 멀리서 무언가 사람 형체가 보였다고 합니다. 가 보니 거북이 등에 앉아 있는 실종된 선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거북이와 같이 인양을 합니다. 그리고 벙골 만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 거북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거북이가 술을 마시는지, 그 책에는 술과 바나나를 잔뜩 주어서 치하를 하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뒷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원의 홀어머니가 그 외동아들을 위해 늘 지극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홀로 살면서 늘 기도를 하고, 아들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

습니다. 공짓은 없습니다. 내가 공을 들인 만큼 나 자신과 이웃에게 그렇게 메아리가 됩니다.

또 기도에는 침묵이 뒤따라야 합니다. 침묵이 반쳐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낙산사 흥련암,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등 좋은 기도처라고 해서 많은 불자들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당에서 기도하고 나와서는 뒷방에 모여 반찬이 어떻다는 등 떠드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무의미한 말들을 늘어놓으면 모처럼 기도해서 생긴 고요한 정기가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기도 기간에는 될 수 있으

면 말이 적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마음속에서 깊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기도가 마음속에서 깊어지기를 바란다면, 결코 그것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개는 좋은 꿈을 꾸어서 관세음보살이 꿈에서 청심환 같은 약을 주더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꿈 자체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큰 꿈 아닙니까? 꿈속에서 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왜 또 꿈을 바랍니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잠든 사람에게만 꿈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마십시오. 기도 경험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충고입니다.

묵언과 침묵으로 일관할 때 비로소 어떤 진리의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도할 때 말소리를 작게 하십시오. 또 기도의 장소를 가리지 마십시오. 고요하고 맑고 청정한 도량이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고 분주한 곳에서는 오히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난 기도 장소에 가 보십시오.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 남의 영당이에 대고 절해야 하고 부처님한테 절할 여백이 없습니다. 서쪽에 만 극락세계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흰 구름이 걷히면 어디나 청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십 년을 하루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영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부의 허망한 실체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산다는 것, 평평거리고 산다는 것, 이것이 다 허망한 짓이구나. 내 분수 밖의 짓이구나. 공연히 내가 내 그릇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원했구나.’

스스로 기도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재벌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에 다섯 끼 여섯 끼 먹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지붕 밑에서 잠잘 텐데, 공연히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허황되고 큰 것을 원했구나.’

이렇게 돌이키고 그 길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행자가 됩니다. 하루는 참선을 하는데 선정에 들어 눈을 떠 보니, 그 앞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한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시기에 여기 계십니까?” 하고 묻

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그대가 10년 동안 그토록 찾았던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노라.”

10년 동안의 기도 끝에 부의 허망함을 느끼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착실하게 기도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뒤늦게 관세음보살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관세음보살에게 말합니다.

“오, 관세음보살님! 이제 저는 선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한때 부자가 되고 싶었던 욕망을 버렸습니다. 마음의 평안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10년이나 미루다가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답합니다.

“명심하라, 그대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10년을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기도한 공으로 본다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오늘까지 미루어 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최고 가는 행복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런 응답이 기도의 공덕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헛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현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소원했던 일이 곧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공덕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 만큼 어디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절인연을 통해서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는 법당이나 성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용해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말 한마디마다 기도가 배어 있어

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법당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집과 방이 바로 법당이고 성당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곧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맞서지 마십시오. 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설령 맞서야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생각을 돌이켜서 물러서야 합니다. 마음속에 벽을 쌓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온 존재를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전 같으면 다투고 맞설 일도 기도한 공덕으로 누구와도 맞서지 않게 됩니다.

건강할 때 맑은 입을 닦아야 합니다.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

니다. 하루하루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 어려운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꽃이 피고 깨달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제가 중 되고 얼마 안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때는 국립공원이 되기 전이라 해인사에 관광객들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길도 좋지 않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한번은 선방에 있을 때인데, 방선(放禪) 시간(참선을 쉬는 시간)에 장경각으로 포행을 갔습니다. 그곳이 포행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시골 아주머니가 그 장경각에서 나오더니, 팔만대장경이 있다고 해서 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모셔진 것을 못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빨래판만 잔뜩 있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깨쳤

습니다. 팔만대장경이 국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나무판에 새겼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빨래판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인사에서 산 인연으로 경전을 쉬운 말로 번역해야겠다. 빨래판 소리 안 들도록 해야겠다.'고 자각을 했습니다.

그런 계기로 운허(耘虛) 스님을 모시고 불교 사전 편찬에도 동참을 했고, 불교 경전 번역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제가 불일암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해 겨울 묵언을 하고, 벽에 기대지 않고, 하루 한끼만 먹고 지냈던 일입니다.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부지런히 지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평생 불교에 귀의해서 절에 다니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고 찾을 때, 그런 계기가 찾아옵니다. 한 생애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는 삼업(三業),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안거 기간 동안 각자 원을 세우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기도를 해서 현재의 보살이 되십시오. 불자들은 저마다 불명(佛名)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교인들은 세례명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름입니다. 이름과 실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극한 기도를 통해 불명과 세례명대로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기도가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해젯날이라

고 하는데, 집에 계시는 재가불자들과 일반 신도들에게는 결제, 해제 따로 없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늘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힘으로 미치지 않는 영역은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내 안에서 거둬들여 펼쳐집니다.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늘 깨어 있고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의 열쇠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빛장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까? 또 하루 일을 다 마감하고 밤에 도둑이 들지 모르니까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로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하라는 뜻입니다. 이 하루라는 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날입니까? 그 하루를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루를 뛰어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서 보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팔십 평생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인연이 다해서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諸行無常).”

덧없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

든 것이 한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실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한시도,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 허망하고 덧없다고 말하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변화 속에서, 무상함 속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깨어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나눔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시도 깨어 있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 2002년 8월 23일 여름안거 해제

•발체 :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인연과 만남

글 • 법 정(法 頂)

진정한 친구는 내 영혼의 얼굴이다. 그는 내 마음의 소망이 응답한 것. 친구를 위해 나직이 기도할 때 두 영혼은 하나가 된다. 맑고 투명하게 서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친구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모든 생각과 소원과 기대가 소리 없는 기쁨으로 교류된다. 이때 비로소 눈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가 된다.

*

사람 마음의 바탕은 선도 악도 아니다. 선과 악은 연緣에 따라 일어난다. 착한 인연善緣을 만나면 마음이 착해지고, 나쁜 인연惡緣을 만나면 마음이 악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계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안개 속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옷이 젖듯이, 우리들의 관계와 환경의 영향 또한 그런 것이다.

*

자주 만나 얼굴을 맞대고 정다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igo 해서 동료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접근해 있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나누어 가질 때,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다.

*

인연 따라 모였다가 그 인연이 다해 흩어진 우리. 이런 만남과 헤어짐을 우리는 무량겁을 두고 되풀이하면서 살아오고 있을 것이다. 세월이 가면 그럽고 아쉬운 마음도 희미해질 것이다. 조금씩 철이 들면서 인생을 이야기 하고 사랑과 이별을 꺼내고 또한 죽음을 말할 것이다.

*

사람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만으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동물적인 나이가 있을 뿐 인간으로서의 정신연령은 부재다. 반드시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은 성장하고 또 형성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혹은 사상이든 간에 만남에 의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간다. 만난다는 것은 곧 개안(開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새롭게 열리고 생명의 줄기가 파랗게 용솟음친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인식하는 것이다.

*

친구지간이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바탕인 이 예절과 신의가 없으면, 자주 만나고 한 지붕 아래서 한 솥밥을 먹고 지내더라도 꺼풀만 남은 금이 간 사이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과 신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예절과 신의가 없으면 사람은 이내 빛이 바래 뻘뻘

스러운 속물이 되고 만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느 계층을 가릴 것 없이 인간의 고결한 품성이요 기품인 이 예절과 신의가 무너져가고 있다. 요즘의 우리를 가리켜 누가 동방예의지국의 후예라 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일이다.

*

나무판과 그림의 조화. 함께함으로써 서로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빛을 발한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저 그런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던 것이, 제 짝을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탄생하는 이 묘리(妙理). 이와 같이 사람도 제 짝을 만나야 비로소 생명의 신비를 발하면서 생동하는 인간으로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제 짝을 만나지 못하면 아름답고 운치 있는 삶을 이루지 못한 채 한평생을 물 위의 기름처럼 겹돌고 말 것이다.

*

한 삶이 무기력하고 권태로워지면 그가 마주치는 친구의 삶도 또한 빛을 잃는다. 길을 가다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발랄한 생기와 신선한 미소와 마주칠 때, 최소한 그날 하루치 삶은 신선한 감동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 대신 우거지상을 대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볼 때는 우리들 자신이 지닌 생기마저 빠져 나가기 쉽다. 그러니 한 사람의 삶의 양식은 그가 원하는 원하지 않건 간에 이웃에 그만큼 메아리를 울리게 마련이다.

*

좋은 친구란 서로가 빈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이일 것이다. 서로의

빈 마음에 현재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사이여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맞은편의 빈 마음에서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속엿말을 터놓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친구이고 싶을 뿐이지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한다.

*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정신을 깊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망스러운 일이다. 정신을 깊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가 힘이 되고 빛이 되어 한없이 승화할 수 있다. 형식 논리로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들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정신을 깊이 하는 창조적인 우정에는 둘을 넘어 열도 백도 될 수 있다. 정신을 깊이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절과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예절과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간에 창조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속한 사귄과 한때의 알고 지냄에 그치고 만다.

*

우리가 친구를 찾는 것은 우리들의 좁 모자란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지, 시간이 남아 주체할 수 없어서 찾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절과 신의와 창조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서로에게 아무런 덕도 끼칠 수 없다. 빈 껍질끼리는 이내 시들해지고 마는 법이니까. 그러니 상호간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그 사이가 날로 새로워져야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

*

좋은 친구란 말이 없어도 넉넉한 사이다. 말을 빌리지 않고도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그만큼 서로가 맑고 투명해야 한다. 그들은 귓속의 귀로 소리 없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임을 거듭거듭 확인한다.

*

세상살이에 가장 어려운 일은 뭐니 뭐니 해도 대인관계가 아닐까 싶다. 사람끼리 어울리는 일로 해서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람의 일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나머지 생애를 포기하고 마는 것도 대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뛰어넘지 못한 데서 오는 비극적인 종말이다.

*

믿고 의지하면서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나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은 복 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터놓고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커다란 위로요 의지처가 아닐 수 없다. 항상 가까이는 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스승이 거기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다.

*

친구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기쁨을 나누어 가질 때 그 기쁨은 몇 곱으로 늘어나고, 슬픔을 나누어 가질 때 그 슬픔 또한 훨씬 줄어든다. 친구끼리 나누어 가짐에는 이렇듯 미묘한 율동이 따르는 법이다. 단 한 사람의 친구도 갖지 못한 인생을 한번 상상해보라. 얼마나 삭막하고 딱딱한 삶이겠는가.

*

친구란 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가질 수도 없다. 전 인생의 과정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무슨 일이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를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찬가를 부를 만한 자격자일 것이다.

*

겉으로는 친구인 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걸핏하면 헐뜯으려는 거짓 친구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 이웃의 불행을 마치 자기 자신의 행복의 척도로 삼으려는 그런 사이비 친구가 우리 둘레에는 더러 있다. 이런 속성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 있는 독이요 중생의 부끄러운 영역이다.

*

사람이란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

건 원하지 않건 간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먹을 가까이하면 그것이 튀어 검어지고, 연탄을 다루면 그 가루나 재로 인해 더러워지듯이, 나쁜 친구를 가까이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쁜 벗을 멀리하고 그 대신 어질고 착한 사람과 가까이 사귀라는 것이다.

*

한 가정의 행·불행도 따지고 보면, 서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와 부모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외부적인 여건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나 자녀들 사이에 신의와 존경과 사랑이 없다면 그 집안은 차디찬 의무만 남은 빈 껍질이 되고 만다. 그와는 달리, 비록 가진 것은 적더라도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으로 다져진 가정이라면 늘 잔잔한 기쁨이 배어나올 것이다.

*

우리는 자기 시간도 소중하게 쓸 줄 알아야 하겠지만, 남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는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훔치는 사람이야말로 큰 도둑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목숨의 한 도막을 빼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좋은 친구란 함께 있는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고, 나쁜 친구란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

좋은 친구란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다. 내 자신 또한 남에게 어떻게 비치지 때로는 헤아려보아야 한다.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큰 고역이 아닐 수 없다. 한평생을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다. 적어도 자기 인생만은 자주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

좋은 친구를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와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 훤히 알 수 있다. 친구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들이 흔히 겪는 일인데,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그 친구가 하는 짓을 보고 환멸을 느끼면서 함께 길 떠난 것을 못내 후회하는 일이 더러 있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해보야 그 친구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럴 바에야 혼자 떨어져서 자기 식대로 지내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후회하게 된다. 속물들과 함께 어울리면 내 자신도 또한 속물이 되고 만다.

*

조금은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맑히는 일이기도 하다. 시시껄렁한 세속적인 유희나 오락 또는 쾌락에 빠지지 말고 그런 일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을 멍들게 하는 오염이니까. 창조적인 만남이란, 서로가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범속한 늪에서 거듭거듭 헤쳐나오는 일이다. 서로가 잠든 영혼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이다.

*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한 시인의 표현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는 그런 사람이다.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사람과는 때때로 만나야 한다.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으면 삶에 그늘이 진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스치고 지나감이다. 마주침과 스치고 지나감에는 영혼에 메아리가 없다. 영혼에 메아리가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나는 몇 권의 책을 짐 속에 챙긴다. 몇 해 전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리처드 바크의 <소울 메이트(영혼의 동반자)>를 감명 깊게 읽었다. 영혼의 동반자를 지닌 사람은 삶의 빛과 의미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생명의 환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한때는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듯하다가도 그것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 그러니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 책을 읽고 있으면 내 영혼의 동반자도 시절 인연에 따라 언젠가 서로 마주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

*

선지식이란 말뜻은 원래 좋은 벗, 어진 친구, 착한 벗을 가리킨다. 또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는 마음의 벗이며, 나에게 보리심(菩提心)을 발하게 하고 깨우침을 주는 이가 바로 선지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선지식은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어떤 특정한 계층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가 어떤 신분을 지니고 무슨 일을 하며 어디서 사는 누구이건 간에, 내 자신에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깨달음의 길에 이르도록 교훈과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가 곧 내게는 선지식이다.

*

올여름 휴가철 나는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다. '굳이 마주쳤다'고 표현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영혼끼리 시간과 공간을 함께함으로써 서로가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일을 만남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환희가 따르지 않은 접촉은 마주침이지 만남이 될 수 없다.

*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건 간에 좋은 친구를 통해 삶의 질서와 규범을 배우고 익히면서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덧없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 당신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거듭거듭 형성되어간다.

*

세상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 이웃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매길 수 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았던 우리 선인들의 순박한 그 마음씨가 그렇다. 분수 밖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맑은 가난의 미덕을 다시 생각할 때다. 탐욕을 이기려면 우선 이웃과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만나는 대상마다 보다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

부부간이건 부모 자식 간이건 가족 상호간의 관계가 이해와 사랑에 바탕을 둔 관계일 때, 그 가족이 이해와 사랑을 삶의 원리로 택했을 때, 이 이해와 사랑은 그 집안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 널리 퍼져 나간다. 이것이 사랑의 메아리다.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라. 이해와 사랑으로 열린 대화를 나눔으로써 차디차고 무표정한 집을 맑고 향기로운 집안으로 바꾸어야 한다.

*

친구란 더 말할 것도 없이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인 메아리이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내 이웃에서 나쁜 친구를 가려내기 전에 내 자신은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의 구실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일이다.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을 찾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바른 법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진 이를 가까이하라는 이 교훈을 명심하라. 그래야 이웃에 오염되지 않고 어진 덕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의 많은 인연들이,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우리의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내 한 몸에 그치지 않고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살면, 그 잘 사는 기운이 온 우주에 긍정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살면, 그 사람을 위해 온 우주가 거들고 있는데, 나쁜 기운을 퍼트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독립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인간관계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내 마음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자 대상입니다. 어디에도 걸림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삶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 생명 뿌리가 꺾였구나

글 • 변택주

“우리 같은 수행자들은 세상눈으로 보면 모두 불효자다. 낱아 길러 준 은혜를 등지고 뛰쳐나와 출세간^{出世間}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나 신부가 되려고 공부하러 가면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꾸며대는 경우는 참 드물다. 하지만 스님이 되려고 출가하는 이들은 몇몇을 빼놓고는 부모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부득이 출가할 때 핑계를 둘러 대고 떠난다. 조선 500년 불교를 배척했던 오랜 단절 기간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다.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 어느 씨락눈이 훌뿌리는 날, 스님이 되려고 절로 간다는 소리를 차마 할 수 없어서 시골 친구 집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뒤로한 채 길을 떠났다. 고살길을 돌아 나오는 뒤로 집 안뜰에는 눈발이 흩날렸다.

스님 기억창고에는 어머니보다는 구수한 할머니 기억이 그득하다. 지극한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스님에게는 어머니 품보다는 할머니 등이 더 따뜻했다. 스님은 당신이 구김살 없이 자란 덕이 할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스님은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졸졸 따라다녔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선포 나서서 기꺼이 해 드렸다. 담배가 몹시 귀했던 그 시절, 초등학교이었던 스님은 할머니를 위해서 혼자 10리가

넘는 읍내까지 나가 담배를 구해다 드렸다.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듣던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소금장수 이야
기라든가 호랑이와 떡 파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만날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무리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 다 듣고 나서
하나 더 해달라고 조르면 할머니는 “긴 이야기 해주랴, 짧은 이야기 해주랴?”
고 물었다. 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긴 긴 간짓대.’ 하고 끝을 맺었다.
“그러면 짧은 이야기” 하고 또 졸라대면 할머니는 ‘짧은, 짧은 담뱃대’ 하곤
그만 자자고 드러누웠다.

스님은 지금 당신이 글을 쓰게 된 소양을 갖추게 된 것은 할머니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은 덕이라고 하신다.

스님은 해인사에 계실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를 꼭 한 번 보고 눈을 감으면 원이
없겠다고 했단다. 스님은 부처님 전에 향을 살라 올려 할머니 명복을 빌면
서 출가한 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할머니 고향은 부산 초량이
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님은 부산에 가서 처음으로 초량을 지날 때 그곳이
전혀 낯설지 않고 살갑게 다가왔다고 회고하신다.

법정 스님은 절에 살면서 어머니를 세 번 뵈었다. 스님이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온 뒤 어머니는 사촌동생이 모셨다.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
보다 스님 어머니를 더 많이 따랐는데, 그런 인연 때문이었을까.

한번은 스님이 모교 대학 강연이 있어 내려간 김에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친구 부인 손에 이끌려 예정에 없이 어머니를 뵈었다. 느닷없이 불쑥 나타난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한편 놀라시며 반가워하셨다. 점심을 한술 뜨고 돌아서는 길, 골목 어귀까지 따라나온 어머니는 꼬깃꼬깃 접은 돈을 스님 손에 꼭 쥐여주었다. 어머니 마음이 담긴 그 돈을 함부로 쓰기 어려워 오랫동안 간직했다가 주석하시던 절 불사에 어머니 이름으로 시주를 했다.

두 번째 빈 것은 광주 사시던 늙으신 어머니가 아무 예고도 없이 고종사촌 누이를 앞세우고 불쑥 스님이 사시는 불일암으로 찾아오셨다. 얼마만인가. 수인사 외에 별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빛바랜 창호지처럼 늙으신 어머니 얼굴에서 스님은 세월을 읽는다. 스님은 손수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점심상을 차려 드렸다. 어머니는 아들 음식 솜씨를 대견하게 여기셨다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준비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보러 오신 걸까?

그날로 오시던 길을 되짚어 산을 내려가시는 어머니 배웅 길, 마침 비가 내린 뒤라 개울물이 불어 노인이 징검다리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징검다리에는 조계산 골짜기 물이 쿵쿵 소리 내어 흘러내렸다. 스님은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어머니를 바짝 올려 업고 개울을 건넜다. 등에 업힌 어머니가 바짝 마른 솔잎단처럼 너무나 가벼워 마음이 몹시 아팠다는 스님은 그 가벼움이, 어머니 실체를 두고두고 생각게 했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들 등에 업혀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세 번째 빈 것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을 대전으로 옮긴 동생을 따라 대전에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많이 쇠약해진 어머니는 스님을 보시고는 전에 없이 많은 눈물을 쏟아 내셨다. 이때가 이승에서 마지막 모자 상봉.

어느 해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스님은 “아, 이제는 내 생명 뿌리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돌아보신다.

“지금이라면 지체 없이 달려갔겠지만, 그 시절은 혼자서도 결제(結制)를 철저히 지키던 때라, 서울에 아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대신 장례에 참석하도록 했다. 49재는 결제가 끝난 뒤라 참석할 수 있었다. 영단에 올린 사진을 보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친어머니에게는 자식으로서 효행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을 때면 어머니를 대하는 심정으로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보상하기 위해 그 모임에 나가신다는 스님은 “나는 이 나이 이 처지인데도 인자하고 슬기로운 모성 앞에서는 반쯤 기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 언덕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기대고 싶은 것인가.” 라고 말씀하신다.

변택주· 아둔하고 미욱한 탓에 좀 슬기로워지라고 법정 스님께서 지광(智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1998년부터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길상사 법회 진행을 맡았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책을 읽고 뜻을 나누고자,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기 위해 나라 곳곳을 다니고 있다.

화상_{畫想}을 얻다

글 • 고 현

아직 물안개가 산 안에 가득한 6월말 초여름 아침, 이때쯤이면 하계 수련 회 관계로 아래 절에 내려와 계심을 알기에 헛걸음을 줄일 양으로 혹시나 싶어 큰 절 쪽으로 먼저 발길을 잡았다.

일주문을 지나 부도전에 반 배 하고 천왕문을 거쳐 종고루_{鍾鼓樓} 앞에서였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과 마주쳤다. 송광사 총무 소임을 보고 계시는 현고 스님이셨다 효봉, 구산 스님의 직계 반열인 ‘현’자 돌림으로, 왜 하필 남의 속명을 뒤집어 범명을 삼았느냐며 서로 맑은 눈빛 나누던 사이였다. 법정 스님 안부를 물으니 ‘그 스님 언제는 큰 절에서 주무시더냐? 한밤중에도 기어이 당신 토굴로 가버리는 분이시다. 무슨 우렁각시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바탕 파안대소하고 헤어졌다.

스님이 불일암에 계실 거라는 귀뜸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선정_{仙境}이다. 계곡의 산길은 아직 햇살이 닿기 전이라 풀숲엔 영롱한 구슬들이 물방울 은하수다. 산 중턱에 접어들면 스님이 직접 쓰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낫익은 꿇말이 눈에 잡힌다. 초행자들이 가끔 길을 잃기에 써놓은 것이지만 그걸 볼 때마다 이정표로만 읽혀지지 않았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우리들 세상살이의 뼈 있는 지침처럼 묘한 여운을 느끼게 하곤 했다.

아침인데도 이마에 땀이 배고 등줄이 후줄근한 것이 올여름도 야무지게 시작될 모양이다. 몇 걸음 되지 않는 죽림을 지나 돌계단 위에 올라서니 마당한 견에 아쁠사, 스님께서 이상한 자세를 하고 계셨다.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넣은 채 나를 거꾸로 보고 계시다가 순간 자세를 풀고 반가워하셨다.

“어서 와요. 아직 이른 시간에 어떤 일입니까?”

“주암담 근처에 동아리 제자들과 MT 왔다가 혹시나 싶어 왔는데,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그런데 스님, 조금 전 자세는……?”

“아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중이었소. 마침 다로에 물을 올려놨는데 잘 오셨소.”

“스님, 어린 시절에나 하던 그런 놀이를 지금도 즐기시나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모양새는 좀 꼴사납지만 어린 시절 느낌과는 전혀 달라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고정 관념 치유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어요.”

“네에? 거꾸로 보기를 통해 고정관념을 치유한다고요?”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새로운 면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들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져 버린 선입견을 벗어나야 하는데, 내 눈이 열리면 열린 눈으로 보는 세상도 달라 보이지요. 고정관념 지우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의사는 없어요.”

스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 조금 전의 민망스러운 자세와 지금의 모습이 교차되어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스님, 정말 그럴까요? 어린 시절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해본다지만 이

나이에 그 자세는 아무래도…….”

“그것 봐요. 고 교수만 하더라도 어떻게 교수가 돼 가지고, 그런 꼴사나운 짓을 하겠느냐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내 동작을 누군가 훑쳐보았다면 나도 영락없는 미친 중 취급 받겠지만 여기 이 산거는 나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따금 즐기곤 하지요.”

나는 결국 스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차를 마시다 말고 한번 해 보겠다고 일어서다. 그리고 내가 가랑이 사이로 얼굴을 넣은 채 군대에서 했던 ‘대거리 박아’를 실시하자 내 자세가 어설퍼던지 스님이 다가오셨다. ‘무릎을 똑바로 펴라. 다리를 더 벌려라. 양손으로 발목을 잡아라’ 등 세련된 가르침이 이미 숙달된 조교가 따로 없었다.

처음엔 몹시 어지러웠다. 그러나 가르쳐주신 대로 심호흡과 쉬엄쉬엄 몇 번을 거듭하다 보니…… 아 어린 시절 경험과는 정말 전혀 다른 세계가 다가왔다.

에메랄드 산과 숲의 색채는 훨씬 더 선명하게 분해되고 있었고, 하늘이 호수가 되자 나머지 대상들은 물 위에 뜬 그림자로 검푸른 앞산과 청회색의 뒷산은 다도해(多島海)의 그림자로 착각이 들고, 물안개와 물방울들마저 자연의 심연에서 개화(開花)하고 있었다.

점을 찍듯 들려오는 풍경소리는 적막과 고요의 형체로 다가오고, 한자락 대숲의 바람까지 눈에 잡히는 듯 호수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

주객의 분리, 결합과 해체, 강조와 생략, 소멸과 여운 등이 투명하게 분리되는 심지어 생물과 무생물까지 하나가 되는 만다라(曼陀羅)의 세계가 그곳에

있었다. 아, 자연이 주는 신비함이 내가 그토록 추구해오던 불교의 이상향과 이렇게 닿아 있을 줄이야……. 내 그림의 모티브가 된 색채, 안개, 물방울, 바람, 그림자, 정적靜的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스님은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열림으로 보라 하셨다. 일어섰다 구부렸다를 반복할 때마다 모든 것이 감동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 대상對象들의 시각적 이상향이 열려가고 있었다. 평생 양식의 또 다른 세계를 견인하게 된 것이다.

스님은 이미 가셨지만 그날 불일암에서 당신의 거꾸로 보기 가르침은 더 이상 나의 방향을 끝내게 만드셨다. 스님은 나에게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시각의 대상을 투명, 고요, 열림, 공간, 원근, 생략, 침묵 등 붓을 들어 표현하기 이전에 더욱 넓고 깊은 사유思惟의 틀을 먼저 채집하게 만드셨다.

지금도 내 작품 속에는 스님의 눈빛이 화필 영감의 중심에 서 있다.

고현·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광주·전남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하였다.

사실 나는 옛집의 주소조차 잊어버렸다

글 • 법 정(法 頂)

군에서 보내 준 두 번째 소식 잘 받았다. 주어진 운명에 굽히지 않고 자신의 젊음을 가꾸기 위해 스스로 선택했다는 길에 축복 있기를 먼저 빈다.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제 될 것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온갖 환경은 '나'를 길러 가는 데 살아 있는 스승의 일을 하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군이나 산이 함께 인간 수도장이라면 궤변이 될는지.

아무쪼록 '나'를 항상 잃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여가 있는 대로 독서하는 버릇을 쉬지 말기 바란다. 물론 병영이 도서관일 수는 없겠지만.

네 말마따나 우리 주변에는 계절과 푸른 하늘과 별과 태양이 있기에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체온'이 있는 동안 우린 결코 불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쩌면 모든 자연은 '나'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산은 이제 신록의 계절. 아침 피꼬리, 한낮의 뼈꾸기, 밤이면 소쩍새들이 있어 첫 여름 산사의 운치를 한결 더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계절이다. 산에서

사노라면 산을 닦아 무심하게 되는가 보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될수록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잊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떠나 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홀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출판 일로 이삼일 뒷면 다시 산사를 떠나 상경할 예정이다. 그러한 인연이 된다면 오는 가을쯤 옛 살던 고향을 다녀왔으면 싶다. 그렇게 전해 주기 바란다. 사실, 지금 나는 옛집의 주소조차 다 잊어버렸단다.

그럼 늘 싱싱하기를.

몸과 더불어 너의 마음도.

1962년 5월 19일

산승 법정 합장

* 발췌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읽는섬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는 법정 스님이 출가 직후 사촌동생인 박성직에게 보내 온 편지를 묶은 것이다. 박성직은 어린 시절 한집에서 같은 방을 쓰며 친형제처럼 자랐다. '나 대신 네가 아들 노릇 해 달라'는 스님의 부탁을 받들어 결혼한 뒤에도 법정 스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 편지는 청년 박재철이 승려 법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름다운 인간관계

글 • 김옥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혹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인간관계다.**

- 법정 -

삶을 살면서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사람들의 성품은 다양한 얼굴만큼이나 다양하다.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었던 것도 도로 빼앗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또 자신이 한 말은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리조리 핑계거리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안하무인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간관계를 파멸시키는 사람도 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갖기 바란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자기 혼자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연 따라 거리낌 없이 사니

글 • 방거사

탐욕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시오
어리석음 없는 것이 진정한 좌선
성내지 않음이 진정한 지계持戒요
잡념 없음이 진정한 구도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인연 따라 거리낌 없이 사니
모두가 함께 반야선般若船을 탄다



• 발체 : 「텅 빈 충만」 텅 빈 충만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맑고 향기로운 가게(불교문화용품 판매점) 운영 및 맑고 향기롭게 문화 상품 개발의 필요성

길상사내 불교문화용품 판매점인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회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를 더욱더 알리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운동을 우리의 자산인 '심불과 로고'가 실린 불교문화상품으로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다양한 재능기부와 참여를 바라며,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매주 목, 금요일)와, 김치(3월-10월 둘째 목요일)를 지원하고,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중입니다. 요양원과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중입니다. 센터와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분도량 길상사에서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1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소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봉사자와 상의하여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 중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숲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중앙 사무국 인사 변동 안내>

8월 1일자로 중앙 사무국 활동가의 직책 변동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주소영 : 간사 → 기획팀장
- 맹진영 : 간사 → 사업팀장
- 김경은 : 간사 → 총무팀장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9월 5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보름 기도	9월 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9월 5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9월 1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9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청년회법회, 중·고등법회, 어린이법회, 새신도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9월 5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기뻐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백중 아미타기도 회향 안내

- 일시 : 9월 2일(수) 오전 9시 20분
- 장소 : 극락전

추계 관음기도 입재

- 일시 : 9월 3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템플 라이프

- 일시 : 9월 12일(토), 26일(토) 오후 1시~4시
- 장소 : 설법전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석 합동 차례

선망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공양을 올리는
추석합동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 시** 2020년 10월 1일 오전 9시50분
※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참배 가능합니다.
- **장 소** 극락전(위패번호 1번~600번), 설법전(위패번호 601번~)
- **동참금** 5만원
- **접수 및 문의** 종무소 / 02-3672-5945

법정 스님 저서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해를 맞아,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화 보존하는 의미로 전자책으로 작업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법정 스님 유언 발표 당시 “스님의 글을 읽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언제든지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와 더불어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존 관리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서적은 <무소유>,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를 비롯하여 총 15권입니다.

저서를 읽고자 하는 분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후원회원(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은 현재 후원중인 회원을 뜻함)이 전자책을 보시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재등록하시면, 사무국에서 확인하여 중복으로 후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 전자책 보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훈탁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니다